

여수시 '학부모와 열린 대화'...행복교육지원센터 간담회

초중고 학부모와 '여수시 교육정책 공론의 장' 열어 특성화 학교 지원·학부모교육 강화 등 의견 제시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초중고 학부모에게 여수시 교육정책에 관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학부모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행복교육지원센터 제1강의실에서 열렸

으며, 30일 초등학교 학부모와 함께 카페에서 진행했다. 간담회는 주요 시정과 시 교육정책에 대한 안내에 이어 학부모와 대화로 진행됐다. 학부모들은 시 교육정책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진학 프로그램 운영

확대, 특성화 학교 지원, 초등학교 주변 안전 확보, 학부모 교육 강화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도 함께 참석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에 응답하며 여수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은 시책이 나온다"며 "보육단계에서 대학까지 선순환 교육체계를 만들어 여수교

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전남 최초 지자체 차원의 학교 교육 지원 모델인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개원해 미래사회와 교육환경 변화 추세에 맞춰 학생·학부모, 학교가 버리는 교육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인성인문, 진로·진학, 지역자원 등 3개 분야 29개 프로그램에 20억 원을 투입해 여수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순천대봉사단, 순천SOS어린이마을과 사회봉사 멘토링

사회공헌 위해 지역 관계기관과 연계 봉사활동 확대 추진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사회봉사단이 지난 최근 지역 보육 기관인 순천SOS어린이마을에서 순천대 직원 및 학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성장지원 멘토링 사업 소나기"멘토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멘토링 사업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가정 형태의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민간사회복지기구인 순천SOS어

린이마을을 방문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향후 순천대 사회봉사단은 매주 목요일마다 순천SOS어린이마을의 각 가정을 방문해 학습 및 생활 지도 멘토링을 실시하고,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대학교 사회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양주용 직원연합회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국립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사회봉사단을 결성했고, 향후 지역사회와 협약 체결 및 신규 활동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천대학교 사회봉사단은 순천대 직원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교수, 학생 등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봉사 모임으로 지난 2월 지역아동센터 등 6개 기관에 코로나 구호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6일에는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와 농노 교류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고위험시설 학원 곳곳 현장 점검

학원 휴원 권고...방역지침 준수사항 전수조사 실시



동부교육지원청이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동부 관내 소속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7개 학원에 대해 학원 방역 대응반을 구성하고 지자체(동구청)와 함께 지난 3일 현장 방문을 확인·점검했다. 고위험시설 학원은 QR코드 설치,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수업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QR 코드를 사용해 보고 비접촉 체온계를 통해 직접 체온도 측정해 봤다. 또 강의실 곳곳을 확인하며 학원 관계자 및 이용자들에게 마스크 착용, 학원 내 소독 및 환기 철저히, 손 소독, 이용자들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원 관계자는 "작년 대비 학원생들이 1/4로 줄었다"며 "강의실

당 200여 명 수용 가능한데 현재 43명 정도만 이용하고 있다"며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철호 교육장은 "현재 학원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처 그 어느 때보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연대정신을 가지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모든 학원에 대해 휴원을 권고했고, 운영 중인 학원에 대해서는 15일까지 방역지침 준수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

50세 이상 교직원에게 맞춤형복지비 지급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교직원 건강검진비를 확대 지원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기존 만 45세 교직원 대상 암검진비(MRI(A)/PET-CT) 50만원 지원에서 범위를 넓혀 50세 이상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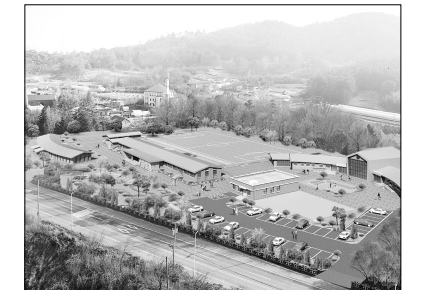
직원 중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1970. 12. 31. 이전 출생)에게 최대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금) 밝혔다. 교직원 개인이 희망하는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은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속 기관(학교)에 제출하면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지급된다. 2020년도 지원 대상은

공·사립 유·초·중·고 교직원 및 특수학교 교직원 4,438명이며, 도교육청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8억 8,700만 원을 확보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졌는데 교직원들이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전남도교육청, 공모결과 확정...담양에 2021년 개교

2021년 3월 전남 담양에 개교 예정인 전남도교육청의 첫 번째 공립 대안학교 교명이 '송강고등학교'로 확정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스스로 서고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꿈꾸는 교육공동체'의 교육 비전을 가진 공립 대안학교 교명을 공모한 결과 '송강고등학교'로 최종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총 116편이 응모한 이번 교명 공모에서는 1차 심사와 2차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심의 대상 후보자 3편을 선정한 뒤 교명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선작을 확

정했다. 당선작은 우리나라 수종을 대표하는 소나무처럼 학생들이 곧고 푸르기를 바란다는 뜻의 '송(松)'과 강물처럼 자유로운 사고를 지니기를 희망하는 '강(江)'을 의미한다. 또한 '송강'은 학교 주변에 흐르는 증암천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도교육청은 '송강고등학교'로 명칭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021학년도 신입생 전형 요강을 공고한 뒤 신입생 모집 홍보와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병삼 전남교육청 민주시민생



활교육과장은 "교명 선정과정을 통해 보여준 대안학교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확인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교명이 확정된 만큼 철저한 개교 준비를 통해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